

2021 문화계 결산 <3> 공연

팬데믹에도 알찬 대면 공연...클래식 스타들 광주 무대에

아벨 파르렛·김기훈 등 무대...연극·영화계도 다양한 작품 보여줘 초연 '적벽대전', '발레살롱콘서트' 등 8개 시립예술단 공연 풍성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19에도 공연계는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났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공연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반토막 난 객석 속에서도 알찬 대면 공연이 이어졌다.

코로나 19 이전처럼 해외 예술가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클래식 스타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또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났으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도 무대에 올랐다. 이밖에 연극제, 영화제 등도 펼쳐졌다.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초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돌입했다. 대극장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획공연, 광주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등은 주로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빛고를 시민문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준비한 기획공연 무대는 클래식,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채워졌다.

소프라노 박해상, 싱어송라이터 심규선,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은, 뮤지컬 배우 신영숙 등이 무대에 올랐고, 첼리스트 김민지, 피아니스트 원재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에스메 파르렛, 아벨 파르렛 등은 클래식 선율로 관객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밖에 에도 라비든스 멤버 존노, BBC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기훈도 관객과 만났다.

광주시립예술단의 공연도 활발했다. 시립교향악단은 올해 흑석역 지휘자를 새 수장으로 맞이해 2021 교향악축제에서 데뷔 무대를 치렀다.

다. 이어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 하이든, 브루크너의 곡을 만나는 '고전의 품격',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을 선보인 '마지막 유산' 등을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다뤘다.

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발레 작품을 해설과 함께 선보이는 '발레살롱콘서트'를 통해 '브루흐&바흐 스위트 by 김용길',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레이몬다', '킹콩스 × 트리플 빌' 등을 선보였다. 또 발레와 미디어아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생명을 통한 위로'를 이어 남스튜디오에서 공연했으며, 제11회 대한민국의발레 축제에 참여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픈클래스'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올해 창단 3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적벽가'를 전통 창극으로 각색한 '적벽대전'을 무대에 올렸으며 시립합창단은 '기억 속에서(In Our Memory)', '노래로 차려낸 맛있는 밥상', '올 겨울에 뭐니 뭐니 해도'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났다.

시립극단은 제1회 창작 희곡 공모를 진행, 당선작 '양림'(이정아 작)을 낭독공연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독일 극작가 게오르크 뷔히너



백주영 김기훈

(1813-1837)가 남긴 3편의 희곡 중 유일한 희극인 '레옹세와 레나'와 폴리처상을 수상한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원작으로 한 '나의 살던 고향'도 무대에 올렸다.

시립오페라단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 '이건용, 오페라 박하사탕'을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오페라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도 광주 관객과 만났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제12회 금호주니어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피아니스트 임은찬, 클라리넷 조인혁, 피아니스트 손민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등을 초청해 무대를 장식했다.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슈퍼 클래식' 무대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 올해 수상자인 조나탕 푸르넬(1위)과 무가와 게이(3등)가 관객들과 만났다. 'ACC 브런치콘서트'에는 배우 홍지민, 피아노 2인조 그룹 '신박' 등을 초청해 무대를 꾸몄으며 이밖에 연극 '지정',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 등도 선보였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작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시립교향악단은 5·18 특별기획공연 '화합'을 선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19에도 공연계는 올해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났다. 사진은 광주시립창극단의 '적벽대전'.

보였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창·제작 공연 '대동춘II'를, 광주문화재단과 제주 4·3평화재단은 특별음악회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을 무대에 올렸다. 아울러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관객과 만났으며, 연극 '애꾸눈 광대-어느 봄날의 약속', '나와라 오바!', '유혼' 등도 펼쳐졌다.

연극계도 다양한 기획전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5회 광주연극제를 시작으로 제17회 광주국제영화제, 제1회 '인(人)과 간(間)'을 주제로 펼쳐졌다. 또 올해는 서울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올랐던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이는 '2021 대학로 소극장축제 in 광주'가 처음 열려 화제가 됐다. 이밖에

극단 Y는 100번째 공연으로 '금복음악다방'을 무대에 올렸으며, 극단 청춘은 '2인극 열전'으로, 극단 토박이는 환경극 축제 등으로 관객과 만났다.

이밖에 다양한 주제의 영화가 스크린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올해 개관 3주년을 맞아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3주년 기획전'을 진행, 지역 영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신작들과 다양한 독립영화들을 선보였으며 광주극장은 러닝타임 5시간 이상인 걸작들을 소개하는 '원데이 시네마'를 비롯해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등을 진행했다. 또 전남대 불문과 학생들이 기획한 제1회 광주 프랑코포니영화제, 제10회 스웨덴영화제, 11회 광주여성영화제 등도 열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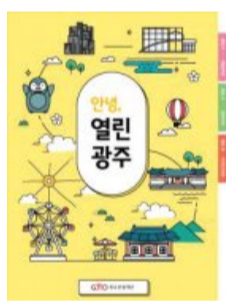
광주관광재단, 가이드북 '안녕, 열린광주'

글자·점자·일러스트 등 구성...소개 영상은 QR코드로

광주관광재단은 최근 광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점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녕, 열린광주' <사진>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에는 예술관광, 생태관광, 트레킹관광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코스 정보와 관광지 설명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또한, 관광약자 편의시설, 관광약자 교통수단 등 관광약자에게 유용한 광주 여행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담겨있다.

가이드북은 글자, 점자, 일러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광지를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각 코스 소개 영상을 QR코드로 담았다. 재단은 우선 1000부를 발행, 광주 관광안내



소 및 주요 관광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광주 관광지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북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점자 가이드북 발간을 시작으로 관광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예술날개'

광주문화재단, 23일 유튜브 중계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하는 성탄맞이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연주회 '예술날개'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진행된다.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우리현악앙상블·밴드 스카이브릿지·빛고를 페스티벌 앙상블 등 장애·비장애 단체 협업으로 펼쳐진다.

첫 번째 무대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강상수 씨 등이 참여하는 '밴드 스카이브릿지'가 올드 팝 'Green Fields(그린필드)'와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등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선보인다. 이어 '밴드 스카이브릿지'와 바이올린 연주자 신수지 양의 협연 무대로 인수가 '겨울의 꿈'을 펼친다.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의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장애인 오케스트라 '우리현악앙상블'이 그동안 갈고닦아온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12명 단원으로 구성된 광주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인 '우리현악앙상블'은 지난 1년간 전문 예술인들 지도하에 연습했다. 헨델의 '울게 하소서', 이선희의 '인연', 이누야사 OST '시대를 초월한 마음'을 들려주고, 엘가 '사랑의 인사', 캐롤송 '저들 밖에 한밤중에'를 연주한다.

또한 전문연주자 단체인 빛고을 페스티벌 앙상블((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산하 연주 단체)도 출연해 '아기코끼리 걸음마', '오 상젤리제', '캐롤 메들리'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현악앙상블' '스카이브릿지' '빛고을페스티벌 앙상블'이 함께 김광진 '마법의 성', 김현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들려준다. 문의 062-670-7462.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